

## 메타버스 땅 사려다 현실 통장만 패닉

학회 포스터에 들어갈 3D 시각화 모델을 밤새 렌더링하다 보면, 가끔은 화면 속 빛나는 가상 공간이 현실보다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탓일까요. 지난주 새벽, VR 헤드셋 업체 디스코드 방에서 “메타버스 프라임 존 선착순 분양”이라는 쪽지를 받았을 때 저는 잠깐 현실 감각을 놓쳤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해외 논문에서 ‘가상 부동산 가치가 실물 경제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구절을 읽은 직후라, 그 메시지가 유난히 솔깃했습니다.

### 새벽에 날아든 DM

‘선착순 200 필지, 시세의 60%’라는 문구와 함께 지도 스크린샷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좌표를 클릭하면 반짝이는 구역이 켜졌고, NFT 형태의 소유권 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디스코드 닉네임 옆에는 “공식 홍보 매니저”라는 뱃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투자심 반으로 “구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놀라울 만큼 신속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 오전 3 시까지 화이트리스트 서류를 제출하면 가상 부동산 두 필지를 1.5 필지 가격에 드리겠다”는 제안이었거든요.

그 화이트리스트 서류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글 품 링크였는데, 거기에는 이름·이메일·지갑 주소와 함께 여권 사진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KYC 강화’라는 명목이라지만, 새벽 세 시 구글 품에서 여권을 찍어 올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착순”이라는 단어에 발목이 잡혀 한동안 양식을 내려다봤습니다.

### 화려한 랜딩 페이지의 미세한 균열

‘분양’ 링크를 타고 들어간 웹사이트 첫 화면은 정말 그럴싸했습니다. 파노라마 뷰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고, 왼쪽 아래 모니터링 창에는 ‘실시간 거래 완료’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주소창이었습니다. 정식 프로젝트 도메인 뒤에 ‘-prime.io’가 덧붙어 있었고, SSL 인증서 발급일이 고작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개발자 도구를 열었습니다. 가상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텍스처 URL이 다른 블록체인 게임에서 훔쳐 온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더군요. 이미지 용량도 2019년 촬영본이었고요.

결정적으로 구매 버튼을 누르자 카드 결제 대신 “가상자산 전용 결제”가 강제되었습니다. 지갑으로 0.8 ETH를 전송하면 계약이 체결된다는 설명인데,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눌러 보니 트랜잭션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누구도 땅을 사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시간 거래 알림 숫자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데이터였습니다.

### 가상 토지 계약서가 드러낸 허점

구매 직전 단계에서 열람할 수 있는 PDF 계약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서명 칸이 이미 디지털 서명으로 채워져 있고, 발행처 로고 옆에는 ‘Web3 Real Estate Alliance’라는 기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소해서 검색해 봤더니 지난해 해킹피싱 경고 리스트에 올랐던 가짜 단체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PDF 메타데이터를 열어 보니 작성 툴이 Adobe Acrobat 이 아니라 ‘CheetahPDF Generator 1.0’이었습니다. 제가 전공 수업에서 써 본 무료 라이브러리였죠. 정식 법적 계약서면 최소한 발행 일자와 서명 키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빈 칸이거나 임의 값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가상 필지를 사면, 실물 법적 분쟁은 고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도 불가능할 게 분명했습니다.

### 검증사이트 검색창에서 터진 결정타

마지막 확인용으로 저는 [먹튀위크](#)에 닉네임과 주소 일부를 입력했습니다. 불과 12 시간 전 올라온 '메타버스 프라임 존 먹튀 사기' 신고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디스코드 닉네임, PDF 계약서, 그리고 0.8 ETH를 전송한 지갑 주소가 제 화면의 그것과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전송 직후 관리자 역할이 삭제됐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브라우저 탭을 닫았습니다.

### 교훈, 그리고 연구실 게시판에 붙인 짧은 메모

사건 보고를 끝낸 뒤, 저는 캡처한 화면을 묶어 연구실 단체 메일에 전송했고, 블록체인 연구실 선배와 함께 디스코드 서버 관리자에게도 신고를 넣었습니다. 채널은 다음 날 오전 폐쇄됐습니다. 0.8 ETH는 날아가지 않았고, 여권 사진도 지갑 주소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 '선착순'과 '화이트리스트'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면 브라우저를 새로 열 것.
- SSL 발급일이 며칠 안 됐는데 실시간 거래가 활발하다면, 숫자를 먼저 의심할 것.
- PDF 메타데이터와 로고 출처를 3 분만 확인해도 손해는 0 원이 된다.
- 먹튀위크 검색은 귀찮음보다 항상 빠르다.

덕분에 제 통장은 안전했고, 3D 시각화 모델도 무사히 렌더링을 마쳤습니다. 다음 번 누군가가 "메타버스 땅으로 투자 수익 내 보자"고 말하더라도, 저는 숫자보다 소스와 인증 날짜를 먼저 확인하라는 충고부터 건넬 것입니다. 특별한 기회처럼 보이는 제안일수록, 사실은 평범한 사기 시나리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